

##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 제1조 (총칙)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 또는 셰플러안산 유한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③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 ④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⑤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 ⑥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을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 ⑦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을 말한다.
- ⑧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을 말한다.

### 제3조 (계약문서)

1.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서면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 (계약이행보증금)

1.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본 조 제2항 각 호에 열거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총계약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로서 갑과 을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1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 ②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 ③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 ④ 국채 또는 지방채
3. 을은 제21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 (계약이행보증금의 처리)

1.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 (공사감독원)

1.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 ①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 ②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 ③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 ④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 ⑤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2.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 (현장대리인의 배치)

1. 을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갑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 제8조 (공사현장 근로자)

1. 을은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이 본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근로자를 갑의 동의 없이 본 공사를 위해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 (공사자 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공사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갑은 위반자 또는 공사 현장 근로자 전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①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작업안전수칙의 준수
- ②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처리 관련조항의 준수
- ③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 관련조항의 준수
- ④ 공사현장 근로자의 풍기 문란, 음주 및 흡연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금지
- ⑤ 공사현장의 표시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 ⑥ 작업 후 공사현장 주변 정리정돈
- ⑦ 공사에 필요한 안전보호구의 비치 및 착용 준수
- ⑧ 기타 갑의 안전관계자 또는 공사 감독자의 시정 지시사항 이행

**제10조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 ② 공사예정공정표
- ③ 공사비 산출내역서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 ⑤ 기타 갑이 지정한 사항

2. 을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을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갑은 을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①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 ② 인력, 장비 및 자재 현황
- ③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

**제11조 (공사기간)**

1.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2.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을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선금)**

1. 갑은 계약서에서 선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경우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시에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선금 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 갑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②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갑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 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제13조 (자재의 검사 등)

1.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 등은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갑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사용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 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6.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 (지급자재와 대여품)

1.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에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갑의 서면승낙없이 이를 공사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4. 을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을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을은 갑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7.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1.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을은 공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기기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장비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토록 한다.
  - ① 산소 용접기 - 안전기 부착
  - ② 아크 용접기 - 자동전격 방지장치 부착
  - ③ 휴대용 연삭기 - 안전덮개 부착
  - ④ 각종 전기 기기류 - S/W, 배선 등 점검
3.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갑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6조 (건설근로자의 보호)

1. 을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갑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17조 (응급조치)

1.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 제18조(공사기간의 연장)

1.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갑은 제1항의 공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 (부적합한 공사)

1.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2.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0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1.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21조 (공사의 변경, 중지)

1. 갑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 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갑이 전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도 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해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갑은

추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을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텀핑수 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제2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 ①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②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 ③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한다.

#### 제2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100분의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4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한다.

-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제25조 (기성부분금)

-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 (손해의 부담)

갑, 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 ①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 : 을
- ②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한 손해 : 갑
- ③ 목적물에 대한 갑의 인수지연 중 발생한 손해 : 갑
- ④ 목적물 검사기간 중 발생한 손해 : 을

#### 제27조 (부분사용)

-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 제28조 (준공검사)

-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인계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제29조 (대금지급)

1.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본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제28조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여 합격판정을 내린 후 본 계약상의 목적물을 을로부터 인도받으면,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30조 (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1조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준수사항)

1. 을은 시공 과정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포함된 경우 동법에 규정된 석면조사 및 처리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을이 직접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수행할 경우 을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임을 보증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이 전항의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아니어서 갑의 동의 하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본 조를 포함한 본 계약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보증한다.
4. 을이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와 관련한 갑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32조 (지체상금)

1.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합의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① 제20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②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③ 기타 갑이 인정할 수 있는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4. 본 조의 규정은 제41조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33조 (하자담보)

1.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종기까지 본 계약에 의한 공사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
  - ② 갑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③ 갑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④ 갑이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3. 을이 갑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4. 갑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로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4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1. 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갑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1. 갑은 을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2.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갑의 을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제36조 (갑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③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갑과 을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 ②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37조 (을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40 이상 감소된 때
  - ②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50을 초과한 때
  - ③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8조 (계약해지시의 처리)

-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9조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3. 갑은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을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 제40조 (채권양도)

1. 을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2. 을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1조 (손해배상책임)

1. 을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태만히 하여 갑 및 갑의 임직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을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태만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42조 (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3조 (분쟁의 해결)

1.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갑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제소할 수 있다.

#### 제44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다.

